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2면

2024 서울 헬스쇼,
전국민을 위한 건강축제로!

3면

“청년들에게 더 가까이”...
대학 축제 현장 찾은 DAMG

4면

동아일보 축구팀,
기자협회 축구대회 준우승

Let's Reboot!... DAMG 2년 차 주니어들, 제주에 모이다

2022년 하반기 입사한 26명, 5월 29~31일 제주에서 리부트 캠프 진행...다양한 워크숍과 프로그램 통해 재충전



① 리부트 캠프 참가자들이 5월 31일 제주 화순곶자왈에서 사운드 워킹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② 5월 30일 제주의 한 호텔 야외식당에서 점심식사 중인 사원들 ③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왼쪽)이 제주 굴머랭파이 쿠키 클래스에 참여한 사원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④ 조별 미션을 수행 중인 사원들 ⑤ 리부트 캠프 참가자들이 제주의 소리를 직접 듣고 기록하는 사운드 워킹 프로그램에 참여해 설명을 듣고 있다.

5월 29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앞. 청명한 제주의 봄 하늘 아래 26명의 동아미디어그룹(DAMG) 입사 2년 차 사원들이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인사를 나눴다. DAMG 리부트 캠프 참석을 위해 모인 이들은 2022년 하반기 입사한 2년 차 신입 기자, PD, CD, 미디어경영직으로 입사 후 약 1년 반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2022년에 시작해 네 번째를 맞이한 DAMG 리부트 캠프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제주 서귀포시 중문단지 일대에서 진행됐다. 리부트 캠프는 DAMG 주니어 구성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입사 후 자신의 회사 생활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와 ‘우리’를 되돌아보다

26명 사원들은 총 6개 조로 나뉘어 활동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Go Back to 2022’ 워크숍, 제주 쿠키

클래스, 화순곶자왈 사운드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쌓았다. 특히 참가자들은 발표, 토의, 활동으로 이어진 ‘Go Back to 2022’ 워크숍을 통해 지난 회사 생활을 돌아보며 서로의 업무와 고민을 열정적으로 나눴다. 이들은 리부트 캠프 참가 전 사전과제로 입사 후 일하며 얻은 배움과 깨달음, 업무적 고민, 앞으로의 커리어 목표에 대해 돌아보고 선배와 주고받은 대화를 정리해 동기들과 공유했다.

스튜디오D 2CP 정선아 PD는 현장에서 잠복 취재한 비하인드 영상 등을 공유하며 다른 동기들에게 PD 직군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보도본부 정책사회부 김태우 기사는 홍성규 부장과 ‘기사를 대하는 기자의 자세’ 등 헌업에서 느낀 고민을 나눴고, ‘기다리지 않고 찾아보고, 찾아가는 기자의 중요함’에 대한 문답을 공유했다. 스튜디오E 2CP 강세린 PD는 김승훈 CP와의 대화에서 ‘PD는 많은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직업’이며, ‘PD에게 일이 새로워지는 것은 휴가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 방법’이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조별로 공유했던 사전 과제에서 공통 키워드를 주제로 인증샷 미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한 영화 <기생충> 패러디, 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 패러디 등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산했다. 마지막 ‘Fairwell 리부트 캠프’ 시간엔 수습 입사자 교육 당시 작성했던 본인의 ‘인생 그래프’와 ‘버킷리스트’를 다시 살펴보고 입사 당시 가졌던 초심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재점검하고 앞으로의 실천 계획을 공유하는 뜻깊은 경험을 나눴다.

오감을 채우는 제주 현지 체험

이번 리부트 캠프는 워크숍 외에도 제주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현지 체험을 통해 바쁜 업무와 일상에서 벗

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30일 제주 현지 식자재로 직접 요리를 체험하는 ‘셀프 쿠키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텃밭에서 현지 재료를 수확하고, 제주 굴머랭파이를 직접 만들고 먹어보며 오감으로 제주를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에는 제주 소리풍경을 들으며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연 힐링 체험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화순곶자왈 숲길을 걸으며 개인별 사운드키트로 소리 풍경을 채집하며 평소 잠자던 감각을 깨우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은 올해도 리부트 캠프 2, 3일 차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6개 조 참가자들과 다양한 체험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구성원들의 더 큰 도약을 위한 DAMG 리부트 캠프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등우
2024.6.19. 수



① 5월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4 서울헬스쇼 행사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3일간 열린 행사에 6만 명 넘는 시민이 방문했다. ② 2024 서울헬스쇼 참가자들이 호흡을 맞춰 단체 줄넘기를 하고 있다. ③ 점핑머신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

이제는 전국민을 위한 도심 속 건강축제로!

2024 서울헬스쇼 5월 14~16일 개최...누적 관람객 6만 명 돌파

5월 14~1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2024 서울헬스쇼'가 누적 관람객 6만 명을 넘어섰다. 서울헬스쇼는 서울의 중심부인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최첨단 헬스케어 산업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올바른 건강 정보를 얻는 도심 속 건강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2024 서울헬스쇼에서는 지난해보다 한 층 더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AD본부는 지난해 헬스쇼에 대한 피드백과 최근 운동 트렌드를

반영해 시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추가 및 보완했다. 사전 참여 신청을 받은 9개 프로그램 모두 마감될 만큼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첫날인 14일 개구무먼 김혜선 씨가 진행한 '점핑머신 체험'에는 100명 넘는 참가자가 모여 퍼포먼스를 펼쳤다. 점핑머신은 손잡이가 달린 트럼펫린 위에서 음악에 맞춰 점프하면서 다양한 동작을 하는 운동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이어 진행된 '폴업(턱걸이) 챌린지'에는 남녀노소를 불

문하고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들의 도전이 이어졌다. 둘째 날인 15일 오전에는 '줌바댄스 페스티벌'이 열리면서 석가탄신일 오전의 서울광장을 화려한 축제의 장으로 바꿔 냈다. 21개 팀, 350여 명의 참가자들이 저마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유려한 동작을 하면서 서울광장 곳곳을 수놓았다. 일반 참가객까지 어우러져 함께 줌바댄스를 추기도 했다. 이번 서울헬스쇼가 열린 3일 동안 서울

광장에는 7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됐다. 시민들은 다양한 테마의 부스를 둘러보며 건강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얻어 갔다. 서울광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부스를 체험하고 행사장 곳곳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등 행사에 참여했다. 올해 부스를 개설한 곳은 삼성전자, LG 전자 등 대기업부터 보건복지부, 서울시,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공공기관까지 다양했다. 유한양행 등 제약사와 종근당건강 등 건강기능식품 기업들도 행사장에서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 2024 서울헬스쇼는 한국 헬스케어 산업의 높은 수준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카카오펀드케어는 이번 행사에서 신

개념 혈당관리 앱인 '파스타'를 선보이며 일상생활에서 당뇨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줬다. 마크로젠은 편리한 유전자 검사키트인 '젠톡'을 내놔고 에버엑스는 근골격계 인공지능(AI) 동작 평가 체형준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재활운동 솔루션을 소개했다. 2024 서울헬스쇼를 준비한 김영한 AD본부 전략사업팀장은 "3일 동안 6만 명의 관람객이 몰리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서울헬스쇼가 진정한 대중행사로 거듭났다"며 "내년에는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준비해 시민들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AD본부 전략사업팀 노태진

실무진에게 듣는 'DAMG 막내들과 일하는 법'

5월 16일 제2회 인사이트 데이 개최...수습 교육 참여한 서상희·유근형·송은석 기자, 'DNA 프린티어' 박정서 기자 발표



미러클럽 한정연 부장이 5월 16일 동아미디어센터 3층 미러클 스튜디오에서 열린 인사이트 데이 발표에 앞서 새로 문을 연 미러클 스튜디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이한결



미러클럽 서상희 기자

"막내들의 추구는 '육각형 인간'... 취재, 오디오, 출연, 협업 모두 잘하는 나를 꿈꾼다"



편집국 뉴스룸기획팀 유근형 팀장

"막내들은 합리적인 피드백에 목말라 있어... 누구보다 '타 강사'의 '직감'을 강하게 원해"



편집국 사진부 송은석 기자

"MZ는 매일 사진을 마감하는 세대... 진정한 비주얼 중심의 재원들이 DAMG에 등장"



보도본부 편집1부 박정서 기자

"한일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 특히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에 대해 2년간 비교 연구...양국 인구정책에 대해 더 취재하고 공부하겠다"

"제가 만나본 동아미디어그룹의 수습 기자들은 '1타 강사'의 '직감'을 누구보다 강하게 원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5월 16일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3층 미러클 스튜디오, 제2회 '인사이트 데이' 강사로 나선 편집국 유근형 뉴스룸기획팀장의 발표에 참석자들은 시선을 떼지 못했다. 지난해 입사한 편집국, 보도본부 수습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경험 등을 토대로 강사들이 생생하게 풀어 놓는 '막내들과 일하는 법'은 DAMG 경영진 및 각 국·실·본부장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인사이트 데이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팀장 및 실무 책임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DAMG 경영진 및 각 국·실·본부장에

게 다양한 영감을 전달하자 취지로 마련됐다.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인사이트 데이에서 막내들과의 보다 더 활발한 소통을 희망하는 국·실·본부장들은 연신 강의 내용을 메모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DAMG 구성원들의 교육을 총괄하는 미러클럽의 서상희 기자, 수습기자 교육 강사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유 팀장과 사진부 송은석 기자가 각자 교육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밝혔다. 이어 'DNA 프린티어' 연수로 일본 와세다대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보도본부 편집1부 박정서 기자가 연수 후기를 발표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서 기자는 수습 교육

을 기획하고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느낀 막내 기자들의 특징을 소개했다. 취재뿐 아니라 제작과 취재 윤리 등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며 수습 단계부터 완성도를 높여려는 수습들의 모습을 교육 과정에서의 여러 에피소드와 함께 소개했다. 서 기자는 "막내들의 추구미(추구하는 아름다움)는 '육각형 인간'이라며 "취재, 오디오, 출연, 협업 모두 잘하는 나를 꿈꾼다"고 했다. "빨간펜 스트레이트 기사 쓰기" 강사로 활약하며 '막내 거격 강사'라는 별명을 얻은 유 팀장은 수습 기자들과의 실제 소통 경험을 생생하게 전했다. 유 팀장은 "우리의 막내들은 합리적인 피드백에 목말라 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MZ 세대들은 대면 소통을 꺼린다'는 인식도 있지만, 정작 직접 겪어본 막내 기자들은 대면 소통에 목 마른 세대"라고 했다. 송 기자는 수습 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법 강의를 하면서 막내 기자들의 뛰어난 사진 실력에 놀랐던 경험을 들려줬다. 송 기자는 "MZ는 매일 사진 마감하는 세대"라며 "기존의 텍스트 중심이었던 세대에서 탈피해 진정한 비주얼 중심의 재원들이 동아미디어그룹에 등장했다"고 했다. 박 기자는 출산을 포기한 한일 젊은 세대를 비교 연구한 과정과 연수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자신의 논문 제목이기도 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을 주제로 발표한 박 기

자는 "앞으로 지방소멸 문제, 이민문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 인구정책에 대해 더 취재하고 공부하겠다"고 했다. 박 기자는 본인이 직접 연수 주제와 방법을 선정하는 DNA 프린티어에 선발돼 2년간 일본 와세다대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강의 시작에 앞서 미러클럽 한정연 부장은 새롭게 문을 연 미러클 스튜디오를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과 30여 명의 DAMG 간부들은 인사이트 데이 행사가 끝난 뒤 미러클럽 스튜디오와 공용 업무공간 <THE 3>를 참관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권오혁

“청년들에게 더 가까이”...대학 축제 현장 찾은 DAMG

5월 고려대, 한양대 ERICA 축제 현장에 ‘동아 프레스존’ 부스 운영...
대학생 맞춤형 콘텐츠 홍보와 이벤트 진행



대학생들이 SNS에 올린 동아 프레스존 참여 인증샷

한양대

고려대 안암 캠퍼스 내 동아 프레스존에 비치된 동아일보와 DBR 매거진

▲ 한양대 ERICA 캠퍼스에 마련된 홍보 부스 모습

동아미디어그룹(DAMG)은 5월 대학 축제 기간을 맞아 20대 청년들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 마케팅분부는 대학 축제가 열린 고려대 안암 캠퍼스(5월 21~22일)와 한양대 ERICA 캠퍼스(5월 28~30일)에서 ‘동아 프레스존(Dong-A PRESS ZONE)’ 부스를 운영했다. 동아일보가 젊음의 현장에서 청년들과 직접 만난 것. 이번 행사를 위해 마케팅분부는 3월 말부터 각 대학 축제운영위원회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섰고, 유동인구가 많은 ‘핫플’에 부

스 위치를 확보했다. 여기에 사전에 각 대학 공식 SNS 계정에 부스 홍보를 진행해 많은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홍보부스에서는 동아 퀄리티저널리즘의 대표주자인 히어로콘텐츠와 답다브, 브랜드쿠 등 디지털 콘텐츠, DBR 매거진 등 DAMG 콘텐츠 홍보와 더불어 마케팅분부가 MZ세대를 겨냥해 론칭한 인스타그램 계정 ‘몰덴룩(morethan.look)’ 홍보 이벤트도 진행했다. ‘몰덴룩’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2030세대 취향에 맞는 핫플레이스와 전시,

책 정보 등을 전하고 있다. 채널A <하트시그널> 마스코트인 ‘라비토끼’와 각 대학의 마스코트 캐릭터 스티커를 활용한 ‘나만의 파우치 만들기’ 이벤트는 축제 기간 내내 큰 인기를 끌었다. 당초 1일 100개 한정으로 계획했지만, 첫날 오전에 물량이 소진돼 2일 차부터는 물량을 두 배로 늘렸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 수확은 동아일보와 DAMG에 대한 젊은 세대의 접점을 한층 더 넓히게 됐다는 점이다. 부스를 방문

한 학생들은 DAMG의 다양한 모습에 “동아일보가 이렇게 힙한 줄 몰랐다”, “몰덴룩 계정이 감각적이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5일간의 행사기간 동안 일 평균 500여 명의 학생이 부스 행사에 참여했고, 5000여 명 이상에게 DAMG 브랜드가 노출됐다. ‘몰덴룩’ 계정 팔로워 역시 크게 늘었다. 앞으로도 마케팅분부는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등 지속적인 청년마케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몰덴룩’과 같이 MZ세대를 겨냥한 SNS

콘텐츠 제작도 늘어나고 있다. 출판국 여성동아팀은 인스타그램 매거진 ‘mmm(멀리 멀리안)’을 통해 2030세대가 관심 가질 뉴스와 패션, 뷰티 분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mmm’은 1mm 디테일부터 1M(100만 명)의 니즈까지, 다양한 트렌드와 정보를 두루 다룬다는 의미다. 6월 중순 기준 해당 계정의 팔로워 수는 15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

마케팅분부 마케팅총괄팀 손수영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권오혁

“대한민국 최고의 티처들이 돌아왔다” <성적을 부탁해:티처스>

6월 30일 저녁 7시 50분 방송



① 왼쪽부터 티처스 진행을 맡은 한혜진, 전현무, 장영란. ② 왼쪽부터 정승제, 조정식 티처 그리고 새로운 티처로 합류한 유튜버 미미미누.

지나해 학생, 학부모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채널A <성적을 부탁해:티처스>(이하 ‘티처스’)가 2024년 여름방학을 앞두고 더욱 강력하게 돌아온다. 정승제, 조정식 티처가 이번에도 멘토로 나서서 가운데 새로운 선생님들도 합류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돕기 위해 나선다. 수학(정승제), 영어(조정식) 외에도 국어, 사회 탐구 등 새로운 과목의 선생님들이 등장해 학생별 맞춤 처방을 제공한다. 특히 제작진은 이번 여름방학을 위해

13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자 ‘수능 경력직 5수생’ 미미미누를 새롭게 앞세웠다. 제작진은 “같은 점수여도 입시 전략과 정보에 따라 입시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다양한 학교에 응시한 경험이 많은 미미미누를 통해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전략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티처스>가 두 번째 해를 맞이하는 만큼 제작진은 더 절실하고 다양한 사연의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나해에는

중·고등학생이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재수생, N수생 등 ‘늦깎이 수험생’도 등장한다. 제작진은 “아버지가 암에 걸린 뒤 의대 진학이라는 목표가 생긴 학생의 절절한 사연 등이 시청자들에게 울림을 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제작진은 약속했던 여름방학보다 더 빨리 시청자를 찾기 위해 그간 숨 가쁘게 달려왔다. <티처스>의 김승훈 스튜디오E CP는 “지금이 방학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학부모들의 고민이 많은 시기이다. 여름방학

이 시작된 뒤 고민하면 늦기 때문에 6월 말에는 시청자를 찾아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학생들마다의 맞춤 처방과 함께 같은 연령대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합법한 보편적인 고민과 해결책을 함께 아우르기 위해 노력했다. 김 CP는 “학교, 직장 등 가족 각자의 생활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모일 시간이 많이 없다고는 하지만 일요일 저녁만이라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우리 프로그램을 보며 집집마다의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나해 처음 방송된 <티처스>는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도전 학생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공부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 학부모 시청자는 물론 학생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인 정승제와 조정식, 그리고 뉴티처 미미미누와 함께 더 독해져서 돌아오는 <성적을 부탁해:티처스>는 6월 30일 일요일 오후 7시 50분 첫 방송된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정하니



① 동아일보 축구팀이 준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② 채널A 풋살팀 'FC에이스'가 채널A를 의미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③ 동아일보 풋살팀 'FC도발'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④ 채널A 축구팀의 모습.

동아일보 축구팀, 기자협회 축구대회 준우승

동아일보·채널A 여성 풋살팀, 첫 출전한 기자협회 풋살대회서 선전

동아일보 축구팀이 제50회 한국기자협회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우승으로 기형 축구대회 최다 우승(7회) 고지에 오른 동아일보는 5월 11일 첫 경기에서 JTBC를 2대0으로 완파하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막강한 조직력으로 뉴시스, MBN, 서울경제신문을 차례로 꺾고 결승에 오른 동아일보는 치열한 접전을 펼쳤지만 YTN에 1대2로 패했다. 주장을 맡은 김성모 기자(경영전략실 정책기획팀)는 “갓 입사한 막내부터 15년 차 이상

고참까지 운동장에서 하나 된 마음으로 열심히 뛰었다”며 “아쉬움도 있지만 다친 선수 없이 좋은 결과를 냈고 남은 것이 더 많았던 대회”라고 말했다. 탄탄한 실력의 젊은 기자들이 포진한 채널A는 1차전 대한경제와의 맞대결에서 세 골을 몰아 넣으며 예선을 통과했지만, 32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아쉽게 패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의 여성 풋살팀도 올해 기자협회 여성화원 풋살대회에 처음 출전해 나란히 승리를 신고했다. 채널

A 풋살팀 'FC에이스'는 5월 25일 파주에서 열린 풋살대회에서 문화일보와 더팩트를 차례로 꺾으며 8강 고지에 올랐다.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매주 2~3회 훈련을 진행한 실력으로 연승을 거둔 'FC에이스'는 8강전에서 전년도 우승팀인 뉴스1에 2대0으로 아쉽게 패했다. 주장으로 활약한 김승희 기자(보도본부 정책사회부)는 “처음에는 동료들과 취미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갈수록 우리 모두 풋살에 진심이 되어갔다”라며 “내년 대회도 기대해 달

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풋살팀 'FC도발'은 32강전에서 뉴데일리를 2대0으로 꺾고 첫 승을 거머쥐었지만 이어 열린 뉴스토마토와의 경기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0대1로 석패했다. 'FC도발'의 이채완 기자(편집국 사회부)는 “소중한 첫 승리의 기억을 안고 내년엔 최소 4강을 목표로 꾸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정하니

마라토너들의 뜨거운 관심 속 하반기 동아마라톤 흥행 질주

2024 서울레이스 역대급 흥행 속 1만2000명 마감



▲ 2024 서울달리기

올해 하반기 열리는 동아마라톤 대회들에 마라토너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레이스는 신청 접수 직후 예정된 참가자 1만2000명이 모두 마감됐고, 경주국제마라톤 유료 신청자 수는 지난해 오픈 첫날에 비해 4배 이상 늘어

1만 명을 넘어섰다. 9월 22일 공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 공주백제마라톤과 10월 19일 경주시민운동장에서 시작되는 경주국제마라톤, 10월 13일에 개최되는 서울달리기 접수 모두 동아일보 마라톤 접수 플랫폼인 '동마클럽'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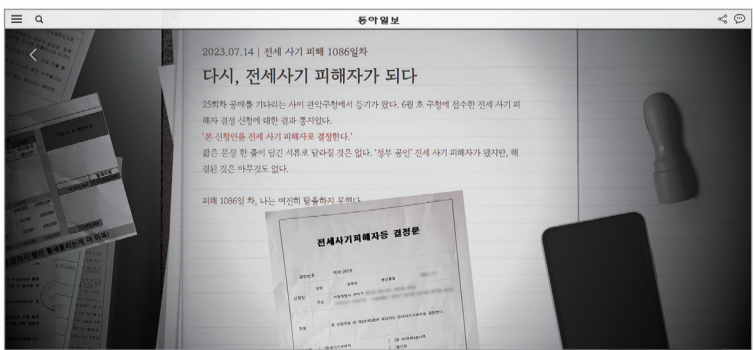
진행됐다. 하반기 동아마라톤은 특별한 콘텐츠들로 마라토너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2024 공주백제마라톤의 경우 폴코스 마라톤 출전을 준비하는 마라토너들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신설된 32.195km 코스

를 올해도 진행한다. 폴코스 전 장거리를 달려보는 LSD(Long Slow Distance) 훈련을 위한 최적 대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 경주국제마라톤의 경우 동아마라톤 3개 대회(서울마라톤, 공주백제마라톤, 경주국제마라톤)를 모두 완주한 참가자를 위한 런저니(Run Journey) 기념품이 준비됐다. 2024 서울달리기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하프 코스 외에 10km가 아닌 11km 코스 운영으로 서울 도심 구석구석을 달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차별화된 콘텐츠와 코스로 2024 하반기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인종산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장은 “올해 동아마라톤 모든 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만큼 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 김승현

DAMG 수상 소식

동아일보 인터랙티브 기사 4편, 뉴스디자인협회 디지털 부문 우수상 수상



수상작 중 '어느 날 내 집에 81억 가압류가 걸렸다'의 스토리 진행 장면

뉴스디자인협회(SND)가 5월 14일 제45회 베스트 오브 뉴스디자인 시상식에서 디지털 부문 우수상에 동아일보 인터랙티브 웹 기사 '미션:제임스네이션을 탈출하라-어느 날 내 집에 81억 가압류가 걸렸다'와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 등 총 4건을 선정했다. 2023년 동아일보 4기 히어로콘텐츠팀 '웅덩이'에 이은 2번째 수상 소식이다. SND는 전 세계 미디어업계에 종사하는 디자인 전문가들을 위해 1979년에 설립된 조직으로 뉴스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인의 경계를 허물고 미디어의 가치를 높이는 기사를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미러클랩 서상희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미러클랩 서상희 기자(사진)가 5월 31일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 문화 확산에 힘쓴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열어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에 노력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이들에게 매년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전혜빈 / 동아일보 출판국

① 저와 동아미디어그룹을 무럭무럭 키워나갔습니다. 최종연접 때 말씀드린 대로 현장과 나다움을 연결할 수 있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② 패션과 에스테틱에 관심이 많으며 정치관련 이슈들도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국방, 음악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즐겨봅니다!



송은범 / 동아일보 편집국

① 남이 보지 못한 속사정을 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② 달리기에 빠져 있습니다. 작년에 실패한 동아마라톤 참가 신청을 올해는 꼭 성공하겠습니다. ③ 매일경제



이민아 / 동아일보 편집국

① 좋은 기사를 쓰고, 선배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동아일보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내 활동도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겠습니다. ② 골프 100홀이 벗어나기입니다. 코로나 때 시작해서 한창 재미를 붙이다가, 실력이 늘지 않아서 좌절 상태였습니다. 올해는 100 이하로 점수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③ 조선비즈



윤채원 / 동아일보 출판국

① 느린 변화를 믿습니다. 세상을 드라마틱하게 바꾸진 못해도 서로에게 친절과 포용을 베풀게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② 지난해, 몇 년 만에 오락실에서 레이싱 게임을 했습니다. 실제 운전도 아닌데 재밌었습니다. 장롱면허라 직접 운전은 어려워서 대신 자전거라도 타볼까 합니다.



임경진 / 동아일보 출판국

① 불편(不便)하게 고민하고 불편(不偏)하게 쓰겠습니다. 발이 편한 것을 경계하겠습니다. ② 취업 준비로 2년간 쉬었던 춤을 다시 취해보려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무엇을 먹지 고민하는 게 즐겁습니다.